

새로운 國民投票가 要求되는 스웨덴

“原子力에너지分野에 새로운 事實들이 대두됨에 따라 스웨덴의 原子力發電 장래에 대해 새로운 國民投票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는 스웨덴 出身의 IAEA事務總長 Hans Blix 박사의 의견이다.



Hans Blix

(國際原子力機構 事務總長)

外務長官을 비롯한 그의 政治經歷의 전 기간을 통해 그는 스웨덴의 에너지政策을 수립하는데 큰 影響력을 준바 있으며, 특히 原子力發電의 장래를 결정하는 1980년의 國民投票에서 그의 역할은 중요하였다.

Hans Blix氏는 스웨덴 商易勞組聯合의 제1부 의장 Rune Molin氏와 함께 國民投票에서 第2案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 案은 「원자력발전을 서서히 廢止하되, 그 추진은 電力業界가 完全 고용 및 복지를 유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Hans Blix氏가 주장한 案에 따르면 당시에 가동중이거나 建設中에 있던 12基를 모두 運用하면서 한편으로 新·再生에너지의 開發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2안은 社會民主黨과 自由黨의 지지를 받았는데, 中道黨이 옹호한 제1안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제2안과 동일하였고, 中央黨과 共產黨이 지지한 제3안은 進行중인 建設工事의 中止 및 10년 이내(1990년까지)에 당시 운전중이던 6기

의 原子力發電所를 모두 폐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스웨덴의 原子力發電을 觀望해 볼때 1980년 國民투표시의 각종 代案에 대한 Hans Blix氏의 의견은 ?

誤解를 피하기 위해 먼저 本人의 임무가 IAEA의 사무총장으로서 113개 가맹국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利用 장려와 안전 및 기술이전을 진흥하는 것임을 먼저 전제하고자 합니다. 특정 會員국의 원자력정책을 評價하는 것이 本人의 임무는 아니나, 스웨덴의 원자력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단계에서 本人이 직·간접으로 責任을 지고 關係하였기 때문에 몇가지 견해를 표현해도 無妨하리라 생각합니다.

회고해 볼때 세가지 方案 모두 그 나름대로의 短點이 있었다고 봅니다.

原子爐 12基案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

原子力の 폐쇄는 完全고용 및 높은 수준의

복지유지와 原子力發電을 代身할 新·再生에너지의 充分한 확보가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가 合理的인 價格水準에서 가까운 장래에 이용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은 아직도 큰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方案은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조건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을 12기로 제한하고자 하는 약속은 일련의 凍結措置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第3案이 근거로 하고 있는 前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로 12基 方案의 신뢰성에 어느 정도의 의문이 있는 반면, 제3안은 더욱 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10년 이내에 원자력발전을 폐지하고 새로운 代案으로 轉換하라는 것인데, 그 대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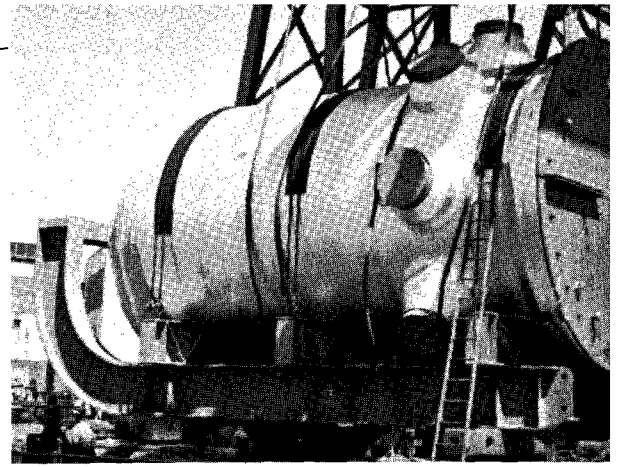
그렇지만 이 方案이 훨씬 더 적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적선적일지는 모르지만, 비현실적인 案이 적선적이라는 理由 만으로 신뢰받을 수는 없습니다. 열성적인 支持者들 만이 이 方案이 石油나 石炭消費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國民投票가 구속력을 갖습니까?

1980년 국민투표 당시 有權者에게 주어진 사실과 情報가 달라진다면, 國民投票의 결과를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네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따라 새로운 국민투표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째는 원자력발전을 代替할 신·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그리고 경제적으로 개발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스웨덴의 電力消費는



국민생산 증가와 더불어 같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원자력발전을 排除시킨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化石燃料의 사용을 늘리는 것 뿐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두번째의 새로운 변화는 各種 에너지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80년에는 석탄 및 석유연소에 따른 질소산화물 및 이산화황의 放出을 우려했는데, 그 이후 이들 방출물이 환경에 주는 극단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옹알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천연가스의 연소에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제3의 변화는 核燃料의 廢棄物에 관한 문제로서 1980년도에도 高單位 放射性廢棄物의 安全한 永久處分이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8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들 폐기물을 생태계로부터 충분히 격리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제4의 변화는 原子力發電所의 수명문제로서 1980년에는 25년으로 가정하였는데, 운전·보수경험에 비추어 볼 때 스웨덴의 발전소들은 설계수명인 40년 이상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人의 견해로는 이러한 論據들 만으로도 1990년대 초에 새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봅니다.